

광양지도 바꿀 목성지구 도시개발 순항

토지 보상률 92%·개발계획 승인... 빠른 시일내 착공키로

1704억 투입 6579세대 주거단지 조성...광양읍권 활성화

광양시가 민선 6기 대표공약이자 광양읍권 발전 5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주)부영주택과 목성지구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부터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9

월 현재 92%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전남도로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도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70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개발면적 67만380㎡에 주거단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6579세대 1만7106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김민영 광양시 공영개발팀장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세종·황금·익신산단 가동과 LF스퀘어 입주, 광양 종합운동면허시험장 설치 및 도립미술관 개장에 따른 업무 종사자 등 유입인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목성지구 개발로 광양읍권이 크게 변화되고, 인구 10만명 달성 목표에도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추석 앞두고 40여세대에 ‘사랑의 땀감’



광양시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땀감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위해 1톤 트럭을 임차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동지역 소재 40여 세대에 50여 톤의 땀감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특히 산림정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봉사기관,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과 연계

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숲가꾸기 산물량이 한정돼 세대 당 공급량은 1톤이며, 지역별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읍면동별 10톤 이하로 지원하고, 과거 지원대상자는 우선지원에서 제외했다.

송명종 광양시 산림조성팀장은 “이번 땀감 나누기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조성팀(061-797-3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연말 개장 LF스퀘어 시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도움되게 추진을”

정현복 시장 간부회의 지시

정현복 광양시장은 “연말 개장 예정인 ‘LF스퀘어’가 반드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추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LF스퀘어 개장 관련 추진사항 등 시 주요 현안 사업들을 공유하고 협의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이날 “LF스퀘어는 지역민이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시민들이 취직해서 일자리를 해결하며, 지역 투자심리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등 여러 면에서 시에 도움을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민선6기 동안 주차장 2000면을 목표로 시내에 주차장을 늘려가고 있는데 상가 밀집 지역과 음식점 거리를 중심으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곳을 정밀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광양항 해양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광양시의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유류 항만시설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야시장 대박 예감

광양시가 공식운영을 앞두고 최근 임시개장한 ‘광양 5일시장’ 야시장에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대박을 예감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토요시장에서 광양만가요제·실버가요제 즐겨요

9·10일 광양5일시장

광양시는 “오는 10일 광양토요시장 정식 개장을 기념해 9일과 10일 광양5일시장 특설무대에서 광양실버가요제와 광양만가요제를 각각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한국연예인협회 광양지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가요제는 지난 8월 20일 예선전을 거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00여명의 참가자 중 8명의 광양만가요제 본선 진출자와 10명의 실버가요제 본선 진출자들이 각각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번 광양만가요제 대상 수상자는 100

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가수인증서가 주어지며, 광양실버가요제 대상 수상자에게는 7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또 최영철과 리틀싸이, 류기진, 박진도, 나광진 등 20여 명의 초대가수들과 지역가수들이 총출동해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기섭 광양시 문화예술팀장은 “광양토요시장 정식 개장과 함께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가요제를 준비했다”며, “먹고, 보고, 듣는 재미를 모두 만족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5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순조



광양시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개발 전경.

광양시가 추진중인 옥룡면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지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력과 공동체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신규·전원마을 조성 공모사업’ 참여해 5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67억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봉강 봉당지구’, ‘봉강 도솔지구’, ‘옥룡 왕금지구’ 등 3개 지구는 택지와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73세대의 건축중

이다.

또 그동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던 ‘옥곡 묵백지구’도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단지 진입도로와 내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등도 오는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옥룡 덕천지구’도 현재 전남도로로부터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받았으며,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홍식 광양시 지역개발팀장은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도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유입돼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